

조선대-광주시페퍼스, 유소년 배구팀 육성 '맞손'

조선대, 흥경기 운영 위한 인적자원·체육관 제공하고 저변 확대 노력 AI페퍼스, 올 5500만원 장학금...조선대배구단에 1000만원 추가 기부

조선대학교와 광주AI페퍼스가 유소년 배구팀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조선대학교와 조선대학교와 광주AI페퍼스는 12일 조선대 청출어룸(靑出於ROOM)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민영돈 조선대 총장과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 김동언 단장을 비롯해 전남시 유소년배구협회장, AI페퍼스 정성우 사무국장, 최민지 선수가 참석했다.

조선대에서는 서영환 미술체육대학장, 이계형 체육실장, 김민철 스포츠산업학과장, 백승현·서효민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김형신 유소년배구단 담당, 박성필 배구부 감독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조선대학교는 광주 AI페퍼스가 운영하는 광주시 유소년배구팀의 운영 및 흥경기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유상 제공 ▲조선대학교는 광주 AI페퍼스가 운영하는 광주시 유소년배구팀 운영을 위한 체육관 및 부대시설 무상 제공 ▲광주 AI페퍼스 소속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소년배구팀 관련 행사프로그램 조선대학교 운영 ▲광주 AI페퍼스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마케팅

체합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광주시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배구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흥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유소년 배구팀 운영과 흥경기 인적자원 지원을 이어나간다.

AI페퍼스는 올해 조선대 장학생 22명을 선발해 총 5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선대학교 배구단 발전 및 인재육성을 위해 10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김동언 AI페퍼스 단장은 "배구단 창단을 하게 된 광주에서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선대학교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돼 뜻깊다"며 "유소년 배구단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은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교수들과 조선대학교 배구단이 학생 꿈나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광주 AI페퍼스와 배구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학교와 광주AI페퍼스는 12일 조선대 청출어룸(靑出於ROOM)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세월이 야속해”

테니스 최강 군림 페더러·윌리엄스 나란히 세계 랭킹 순위권 밖 밀려나

남녀 테니스 최강으로 군림했던 로저 페더러(41·미국)와 세리나 윌리엄스(41·미국)가 7월 세계 랭킹에서 나란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먼저 페더러는 올해 윌리엄스 직전 세계 랭킹인 6월 말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순위에서 97위에 올라 있었으나 윌리엄스가 끝난 뒤 발표된 11일 자 순위에서는 세계 랭킹에서 제외됐다.

1981년생인 페더러는 16살 때인 1997년 9월 처음 단식 세계 랭킹에 진입했고, 이후 올해 6월까지 25년간 세계 랭킹을 유지했다.

2004년 처음 세계 1위에 올랐고 2018년 6월까지 총 310주간 세계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최근 무릎 부상으로 지난해 윌리엄스 이후 대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25년 만에 랭킹에서 빠지게 됐다.

테니스 세계 랭킹은 최근 52주간 성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근 1년간 성적이 없으면 랭킹에서도 제외된다.

페더러는 9월 레이버컵과 10월 스위스 인도어 바젤 대회를 통해 코트에 복귀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윌리엄스에도 다시 출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페더러와 1981년생 동갑인 윌리엄스도 11일 여자프로테니스(WTA) 단식 세계 랭킹에서 사라졌다. 6월 말에도 이미 1204위까지 내려갔던 윌리엄스는 올해 윌리엄스 단식 본선에 와일드카드로 나왔으나 1회전 탈락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윌리엄스는 다만 올해 윌리엄스에 앞서 은스 자베르(튀니지)와 한 조로 WTA 투어 대회 복식 경기에 출전, 4강까지 올라 복식 세계 랭킹은 407위에 올랐다.

윌리엄스가 단식 세계 랭킹에서 제외된 것은 임신 및 출산으로 2017년 초부터 약 1년간 자리를 비웠던 2018년 2월 이후 이번이 4년 5개월 만이다.

윌리엄스는 8월 말 개막하는 US오픈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더러는 윌리엄스에서 8차례 우승을 비롯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0회 정상에 올랐고, 윌리엄스는 메이저 여자 단식에서 23번 우승한 선수다.

/연합뉴스



김장우(장흥군청-가우테이)가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세단뛰기에서 우승한 뒤 시상대에서 기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육상실업팀 전국대회 맹활약

박서진·이세화·김은정 금메달 세단뛰기 김장우 대회신기록 우승

전남육상실업팀 선수단이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서 맹활약했다.

12일 전남육상연맹(회장 김용주)에 따르면 전남육상 실업팀 선수단이 최근 강원도 고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해머던지기 여자부 1인자인 박서진(목포시청)은 58m 06을 던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세화(여수시청)는 5000m 경보에서 23분28초80, 김은정(여수시청)은 높이뛰기에서 1m73

cm를 기록, 1위에 올랐다.

김장우(장흥군청)는 세단뛰기에서 16m 78로 대회신기록 및 개인최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김동욱(나주시청)은 남자부 800m에서 1분53초47로 은메달, 정일우(여수시청)은 포환던지기 18m10를 던져 은메달을 수확했다.

김현진(해남군청)은 여자부 10000m에서 35분35초02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각 실업단체의 적극 지원과 선수, 감독 및 코치들의 노력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며 "전남육상의 경기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북구청 서민영 전국실업검도 금메달 조선대 노민점 회장기 대학검도 우승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우승한 북구청 서민영.



대학검도회장기에서 우승한 조선대 노민점.

광주 북구청 서민영이 전국검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민영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열린 2022 창녕군수기 하계전국실업 검도대회 5단부 개인전에서 1위에 올랐다.

4단부에 출전한 조관현(광주 북구청)은 준결승

에서 패해 아쉽게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조선대 노민점(2년)은 최근 경북 구미장 애인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대학검도대회 남자 1부(저학년)에서 제주대학교 현충호를 2-1로 꺾고 우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머리카락 휘날리며 강력 리턴

러시아의 안나 카린스카야가 12일 스위스로 손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대회 여자오픈 로손토너먼트 1회전에서 슬로베니아의 타미라 지단세크를 상대로 강력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탐간: 매버릭, 토르: 러브 앤 센더
- 2관 탐간: 매버릭
- 3관 탐간: 매버릭,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4관 엘비스
- 5관 탐간: 매버릭,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 6관 토르: 러브 앤 센더,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 9관 토르: 러브 앤 센더
- 7관 씨네캐슬 범피도시2, 더 길다: 죽어도 되는 아이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 8관 씨네캐슬 헤어질 결심, 범피도시 2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ART WEEK

광주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공연
GAC ART WEEK
일시 : 2022.07.06.(수)-15.(금)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문의 : 062-613-8235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즐거움 문화 산책